

글로벌 펀드플로우 주간 리포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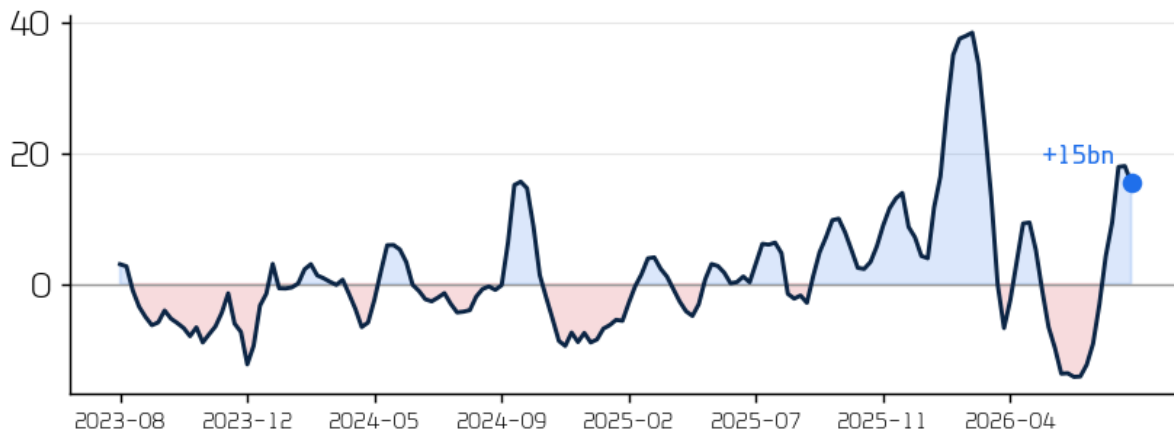
2026.08.24 · 데이터 마감 2026.08.19(수) 주간 ·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

최근 4 주간 펀드 전체로 2,540 억달러가 순유입됐지만 위험 선호는 중립 — 주식과 현금이 나란히 불어났다

전체 순유입(4 주) +254.0 bn · 위험 선호는 최근 5 년 중 상위 35% 수준 · 주식 4 주 유입은 2000 년 이후 상위 5% 수준

이번 주 주인공: 신흥 주식 —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 · 유입 세기는 최근 5 년 중 상위 9%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ment

- 펀드 전체에 최근 4 주간 2,540 억달러가 순유입, 위험 선호 국면은 중립
- 주식형 펀드에 4 주간 901 억달러 — 유입 세기가 최근 5 년 중 상위 10%
- 주식 4 주 유입 금액은 2000 년 이후 모든 주와 비교해 상위 5% 수준
- 현금성 머니마켓에도 4 주간 839 억달러 — 공격·방어 자산이 동시에 증가
- 원자재는 돈이 들어온 펀드가 60.7%, 최근 3 년 중 상위 3%의 넓은 매수
- 신흥국 주식은 자산 대비 유입 0.82%로 미국(0.29%)을 크게 앞섰다

펀드 전체로 최근 4 주간 2,540 억달러가 순유입됐다. 주식형 펀드에 901 억달러가 들어와 자산 규모를 감안한 유입 세기가 최근 5 년 중 상위 10%에 올랐고, 금액만 놓고 보면 2000 년 이후 모든 주와 비교해 상위 5% 수준이다. 그런데 같은 기간 현금성 자산인 머니마켓에도 839 억달러가 들어왔다. 공격 자산과 방어 자산이 나란히 불어난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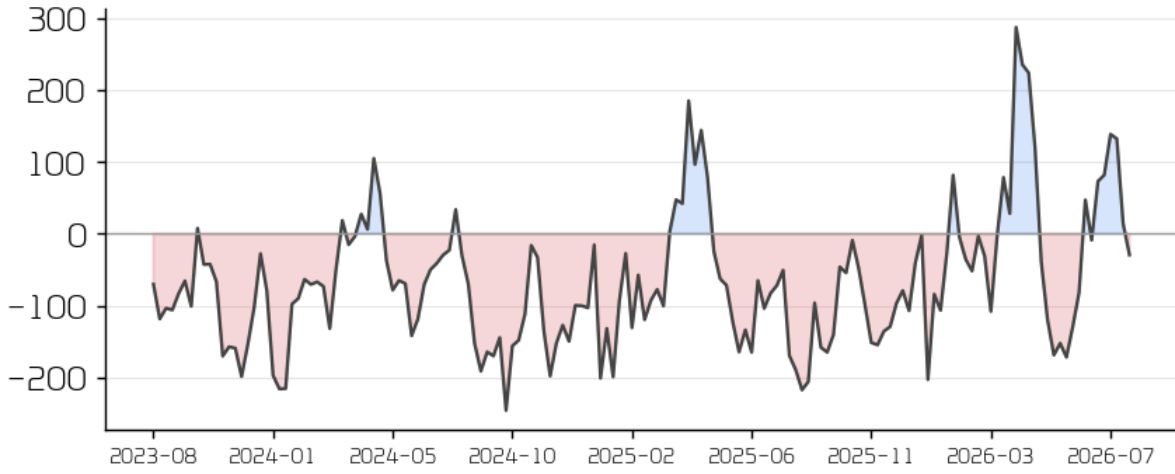
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을 뺀 흐름은 최근 4 주간 293 억달러 마이너스였고, 위험 선호 국면은 중립에 머물렀다. 권역으로는 신흥국 주식은 자산 대비 유입 0.82%로 미국(0.29%)을 크게 앞섰고, 중국·인도·유럽에서는 돈이 빠져나갔다. 유입 규모는 컸지만 방향은 아직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.



위험선호 — 현재 「중립」 국면

● 중립 (Neutral) 위험자산-안전자산 4 주 -29.3 bn · 위험선호 강도는 최근 5 년 중 상위 35%

위험선호 지표 (위험자산 vs 안전자산, 4 주누적 USD b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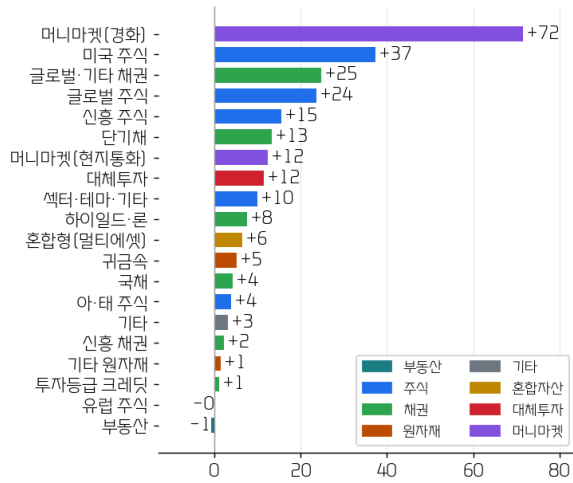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- 금액으로는 주식(4 주 901 억달러)과 머니마켓(839 억달러)이 가장 컸다. 자산 대비 비율은 머니마켓이 0.81%로 주식(0.33%)보다 높지만, 과거와 비교한 위치는 주식이 최근 5 년 중 상위 10%인 반면 머니마켓은 상위 46%로 평상 범위다. 주식 쪽 쏠림이 상대적으로 더 이례적이다.
- 돈이 들어온 주식형 펀드는 49.5%로 절반에 못 미치지만, 이 비율 자체가 최근 3 년 중 상위 11%에 해당할 만큼 넓게 퍼진 유입이다. 소수 펀드에 몰린 자금이 아니다.
- 채권형 펀드에는 4 주간 530 억달러가 들어왔다. 자산 대비 0.58%,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도 최근 3 년 중 상위 45%로 둘 다 평상 범위다.
- 대체투자는 4 주 115 억달러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,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이 최근 3 년 중 상위 12%로 넓다. 다만 한 주 기준으로 6 억달러 순유출로 돌아섰다.
- 원자재는 4 주 66 억달러로 금액은 작아도 자산 대비 1.18%로 비율이 높고,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이 최근 3 년 중 상위 3%로 극단적으로 넓다.
- '기타' 항목은 자산 대비 1.63%로 전 자산군 중 가장 높고 유입 세기도 최근 5 년 중 상위 3%지만,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은 최근 3 년 중 하위 10%로 오히려 유출이 우위다. 소수 펀드가 만든 숫자일 가능성이 크다.
- 부동산은 4 주간 7 억달러 순유출로 자산군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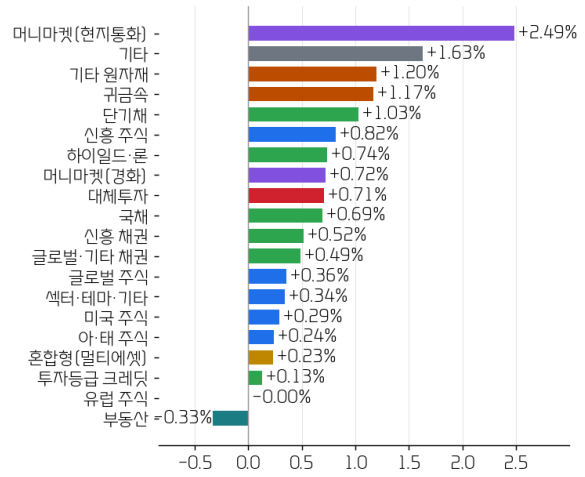
권역·테마 — 규모(절대금액) vs 강도(자산대비)

권역·테마 그룹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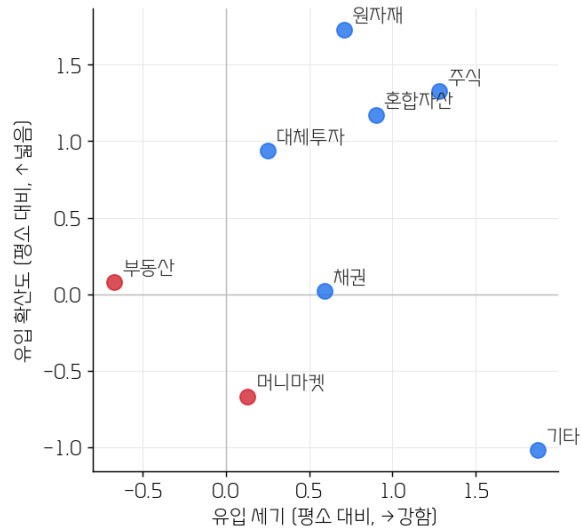
권역·테마 그룹 4 주 유입강도 (순유입 ÷ 자산, %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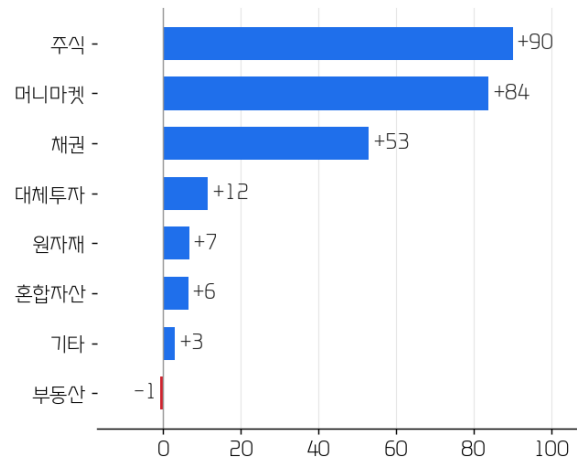
매크로 자산군 — 강도·참여폭

유입 세기 × 확산도 신호 사분면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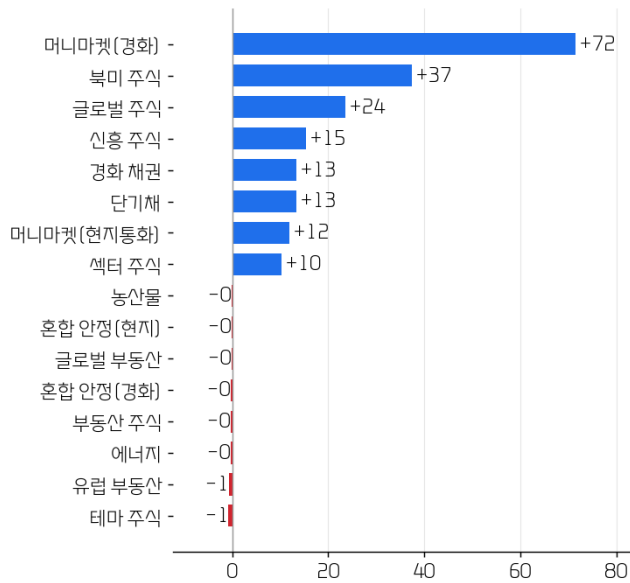
매크로 자산군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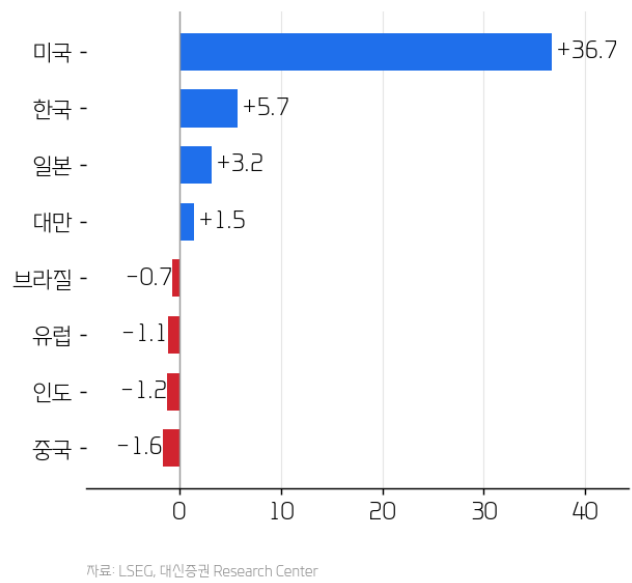
섹터·지역 로테이션

섹터·지역 로테이션 — 4 주 순유입 상·하위 (USD bn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주식 국가별 4 주 순유입 (USD bn, 참고·비합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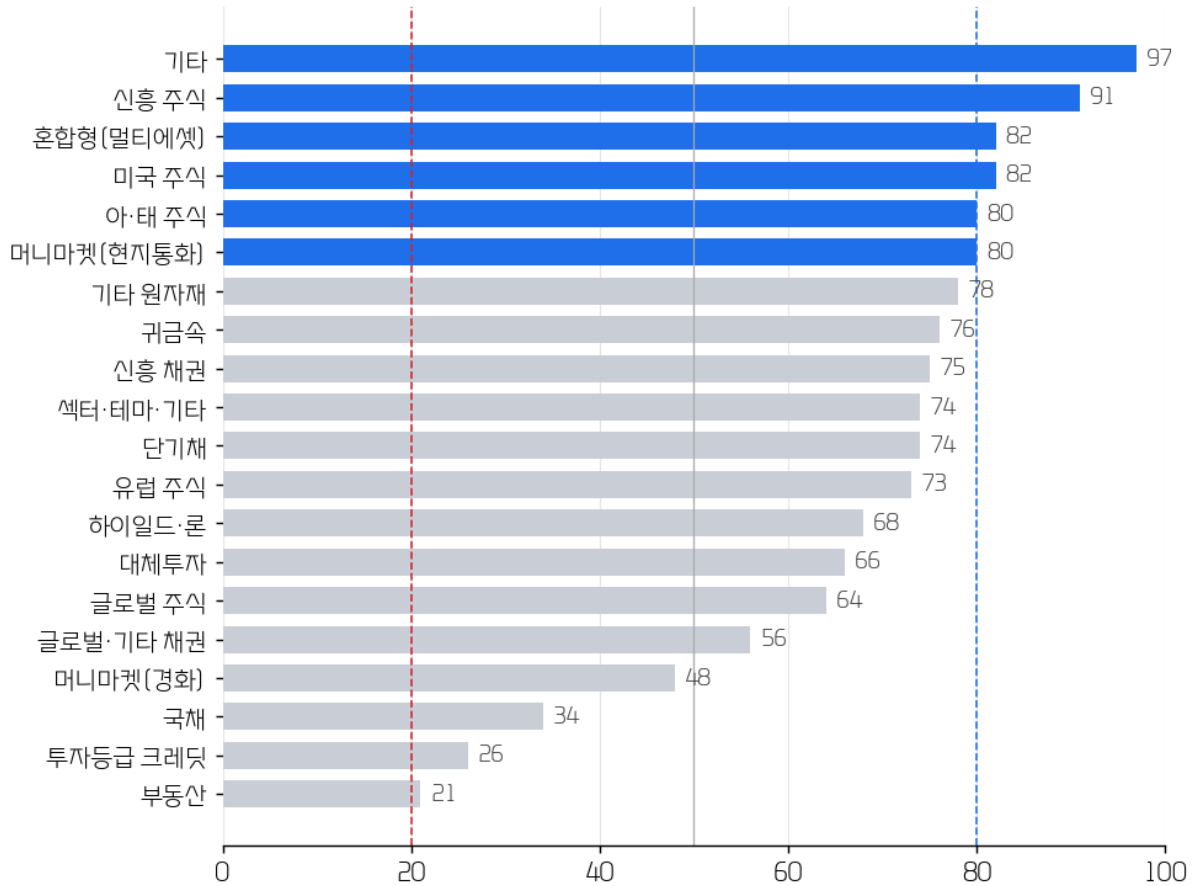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- 미국 주식은 4 주간 374 억달러로 주식 권역 중 금액 1 위다. 다만 자산 대비로는 0.29%, 유입 세기는 최근 5 년 중 상위 18% 수준이다.
- 신흥국 주식은 금액(155 억달러)이 미국의 절반 이하지만 자산 대비 0.82%로 비율이 훨씬 높고, 유입 세기가 최근 5 년 중 상위 9%로 주식 권역 중 가장 강하다.
- 아시아태평양 주식은 4 주 39 억달러, 자산 대비 0.24%로 금액과 비율 모두 작지만 과거와 비교한 위치는 최근 5 년 중 상위 20%다.
- 유럽 주식은 4 주간 1 억달러 순유출로 자금 유입이 사실상 멈췄다.
- 국가별로는 미국(4 주 367 억달러, 직전 주 194 억달러), 한국(57 억달러), 대만(15 억달러)이 견조했다. 일본은 4 주 누적 32 억달러 유입이지만 직전 주에는 10 억달러가 빠져나가 방향이 엇갈렸다.
- 중국(-16 억달러), 인도(-12 억달러), 유럽(-11 억달러), 브라질(-7 억달러)은 최근 4 주 누적으로 순유출이다.

신호 · 역사적 극단

유입 세기의 5 년 내 위치 (0~100) — 80 위는 과열권, 20 아래는 침체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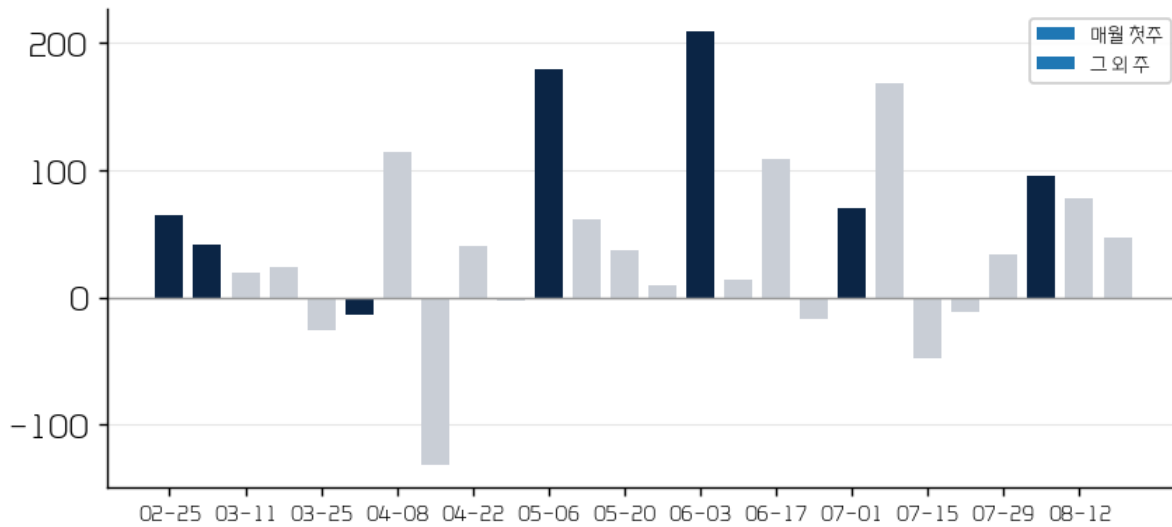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- 주식 4 주 유입 금액은 2000 년 이후 모든 주와 비교해 상위 5%에 해당한다. 자산 규모를 감안한 유입 세기도 최근 5 년 중 상위 10%로 같은 방향을 가리켜, 한 주짜리 일시적 쏠림으로만 보기는 어렵다.
- 원자재는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이 최근 3 년 중 상위 3%다. 금액은 작지만 매수가 넓게 퍼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확산되는 초기 신호로 볼 여지가 있다.
-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을 뺀 흐름은 4 주 간 293 억달러 마이너스이며, 그 위치는 최근 5 년 중 상위 35%로 중립 범위다. 극단적인 위험 선호도 회피도 아니다.
- '기타' 항목은 유입 세기가 최근 5 년 중 상위 3%인데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은 최근 3 년 중 하위 10%다. 이 괴리는 역발상 신호보다 소수 대형 펀드의 자금 이동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.

유의점 · 해석 한계

주간 총 순유입 (USD bn) — 진한 막대 = 매월 첫 주(월간 보고 펀드 반영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-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을 뺀 흐름이 마이너스인데도 전체 순유입은 4 주간 2,540 억달러로 컸다. 주식과 현금이 동시에 늘고 있어 유입 규모만으로 위험선호를 단정할 수 없다.
- 유입 금액이 크다고 자금이 고르게 퍼진 것은 아니다. '기타' 항목처럼 유입 세기는 극단인데 돈이 들어온 펀드는 절반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. 소수 대형 펀드가 전체 숫자를 흔들 수 있다.
- 월간으로만 실적을 보고하는 펀드의 자금이 특정 주에 몰려 반영되면서 한 주 치 숫자가 크게 튈다. 한 주 치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되며, 4 주 누적과 과거 대비 위치를 함께 봐야 한다.

자산군별 상세

앞의 큰 그림을 자산군마다 한 단계(권역·스타일·듀레이션·통화) 더 내려본다. 주식·대체투자·채권·머니마켓은 세부 종목까지, 나머지는 중분류까지. 규모가 미미하거나 신뢰도가 낮은 코리는 제외했다. 절대금액(bn)은 굴리는 자산이 큰 시장(미국 등)이 늘 상위에 오므로, 강도(자산대비%)를 함께 봐야 규모 효과를 걸어내고 실제로 세계 들어온 곳이 보인다.

주식 4 주 +90.1 bn

중분류	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북미 주식		+19.9	+37.4	41%	+0.3%
글로벌 주식		+3.7	+23.6	26%	+0.4%
신흥 주식		+1.6	+15.5	17%	+0.8%
섹터 주식		-1.0	+10.2	11%	+0.5%
아·태 주식		-1.1	+3.9	4%	+0.2%
기타 주식		+0.1	+0.7	1%	+1.3%
유럽 주식		+0.0	-0.1	0%	-0.0%
부동산 주식		-0.1	-0.3	0%	-0.1%
테마 주식		+0.4	-0.7	-1%	-0.2%
세부 종목	소속	1 주(bn)	4 주(bn)		강도(자산대비%)
미국(광의·대형)	북미 주식	+19.5	+38.7		+0.4%
글로벌	글로벌 주식	+0.5	+13.1		+0.3%
신흥 전반	신흥 주식	+1.7	+10.4		+0.8%
IT 섹터	섹터 주식	+1.6	+6.9		+0.6%
글로벌(미국 제외)	글로벌 주식	+2.2	+6.5		+0.4%
한국	신흥 주식	+0.2	+5.7		+3.6%
미국 중소형	북미 주식	-0.9	-5.1		-0.3%
유럽(영국 제외)	유럽 주식	-0.1	-1.7		-1.4%
UK	유럽 주식	-0.3	-1.6		-0.6%
천연자원 테마	테마 주식	-0.1	-1.4		-1.2%
홍콩	아·태 주식	-0.0	-1.2		-4.0%
Global ex US Sm&Mid Cap	글로벌 주식	-0.2	-1.1		-0.9%

대체투자 4 주 +11.5 bn

중분류	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리퀴드 대체		+2.3	+4.1	36%	+0.6%
대체 채권		+0.2	+3.2	28%	+0.9%
대체 주식		-3.3	+3.0	26%	+0.7%
절대수익		+0.2	+1.0	8%	+0.9%
헤지펀드		+0.1	+0.2	2%	+0.9%
세부 종목	소속	1 주(bn)	4 주(bn)		강도(자산대비%)
상대가치	리퀴드 대체	+1.1	+3.3		+1.0%
Credit Focus	대체 채권	+0.4	+2.4		+1.2%
주식 마켓뉴트럴	대체 주식	+0.1	+1.0		+2.5%

중분류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롱숏 주식(미국)	대체 주식	+0.3	+0.9	+1.5%
관리형 선물(CTA)	리퀴드 대체	+0.2	+0.8	+1.8%
롱숏 주식(글로벌)	대체 주식	+0.3	+0.8	+2.0%
전용 숏(하락 베팅)	리퀴드 대체	+0.6	-0.6	-3.8%
멀티전략	리퀴드 대체	+0.2	+0.7	+0.6%

채권 4 주 +53.0 bn

중분류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경화 채권	+5.4	+13.4	25%	+0.4%
단기채	+3.3	+13.4	25%	+1.0%
글로벌 채권	+1.6	+8.3	16%	+0.7%
하이일드	+0.8	+4.4	8%	+0.6%
국채	+2.0	+4.2	8%	+0.7%
뱅크론	+0.6	+3.1	6%	+1.4%
기타 채권	+1.0	+3.1	6%	+0.6%
신흥 채권	+1.2	+2.2	4%	+0.5%
회사채	+1.0	+1.0	2%	+0.1%
현지통화 채권	-0.3	-0.0	0%	-0.0%

세부 종목	소속	1 주(bn)	4 주(bn)	강도(자산대비%)
USD Government Short Term	단기채	+1.5	+5.8	+1.7%
미국채 단기	단기채	+1.1	+4.4	+0.9%
미국채 중기	경화 채권	+1.0	+3.4	+0.3%
글로벌 채권(USD)	글로벌 채권	+0.7	+3.2	+0.6%
Loan Participation Funds	뱅크론	+0.6	+3.1	+1.4%
USD Municipal	경화 채권	+0.4	+2.3	+0.6%
원화 채권	현지통화 채권	-0.3	-1.1	-3.1%
Global CHF	글로벌 채권	+0.0	+0.5	+0.5%
Emerging Markets Global HC	신흥 채권	+0.5	+0.5	+0.3%
Europe High Yield	하이일드	+0.1	+0.5	+1.5%
CHF	경화 채권	+0.3	+0.5	+0.4%
Global High Yield EUR	하이일드	+0.1	+0.6	+1.1%

머니마켓 4 주 +83.9 bn

이 자금의 81%는 사실상 미 달러 MMF 한 갈래 (+67.6 bn)

중분류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머니마켓(경화)	+0.3	+71.6	85%	+0.7%
머니마켓(현지통화)	+2.9	+11.9	14%	+2.8%
머니마켓(기타)	-0.7	+0.4	1%	+0.6%
세부 종목	소속	1 주(bn)	4 주(bn)	강도(자산대비%)
미 달러 MMF	머니마켓(경화)	+3.9	+67.6	+0.8%

중분류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원화 MMF	머니마켓(현지통화)	+3.7	+6.3	+4.0%
파운드 MMF	머니마켓(경화)	+0.2	+4.7	+1.1%
TRY	머니마켓(현지통화)	+0.7	+3.8	+7.3%
ZAR	머니마켓(현지통화)	-0.0	+0.8	+2.8%
COP	머니마켓(현지통화)	-0.4	+0.8	+2.1%
유로 MMF	머니마켓(경화)	-3.9	-1.2	-0.1%
ARS	머니마켓(현지통화)	-1.0	-0.6	-1.8%
SAR	머니마켓(현지통화)	+0.2	+0.5	+2.1%

혼합자산 4 주 +6.4 bn

중분류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혼합 중립(경화)	+0.6	+3.1	48%	+0.5%
혼합 유연(경화)	+0.6	+2.5	39%	+0.3%
혼합 중립(현지)	+0.2	+0.5	8%	+0.7%
타기 만기형	+0.2	+0.3	4%	+0.2%
혼합 기타	+0.0	+0.2	2%	+0.1%
혼합 적극(경화)	+0.0	+0.1	2%	+0.0%
혼합 유연(현지)	-0.0	+0.1	2%	+0.4%
혼합 적극(현지)	-0.0	-0.0	-1%	-0.0%
혼합 안정(현지)	-0.0	-0.1	-1%	-0.1%
혼합 안정(경화)	-0.3	-0.2	-3%	-0.1%

원자재 4 주 +6.6 bn

중분류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귀금속	+2.0	+5.2	79%	+1.2%
복합 원자재	+0.3	+1.5	22%	+1.7%
기타 원자재	+0.1	+0.3	4%	+4.3%
산업금속	+0.0	+0.0	1%	+1.3%
농산물	+0.0	-0.1	-1%	-3.2%
에너지	-0.1	-0.3	-5%	-2.6%

기타 4 주 +3.1 bn

중분류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기타	+1.3	+3.1	100%	+1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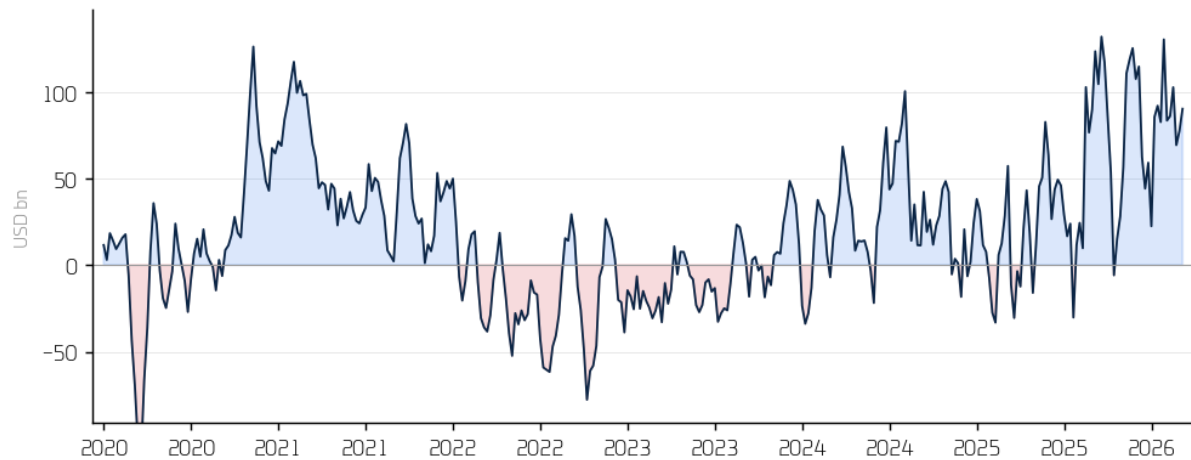
강도(자산대비%) = 4 주 순유입 ÷ 그 항목이 굴리는 자산. 절대금액이 커도 강도가 낮으면 '덩치라서 큰 것', 작아도 강도가 높으면 '세게 들어온 것'(자산 \$10 억 미만은 노이즈라 「—」). 비중 = 그 중분류가 자산군 순유입에서 차지하는 몫(순액 작은 자산군은 왜곡되어 「—」). 세부 종목은 4 주 순유입 규모가 큰 상·하위만 주렸다.

부록 — 권역·테마 그룹 (4 주누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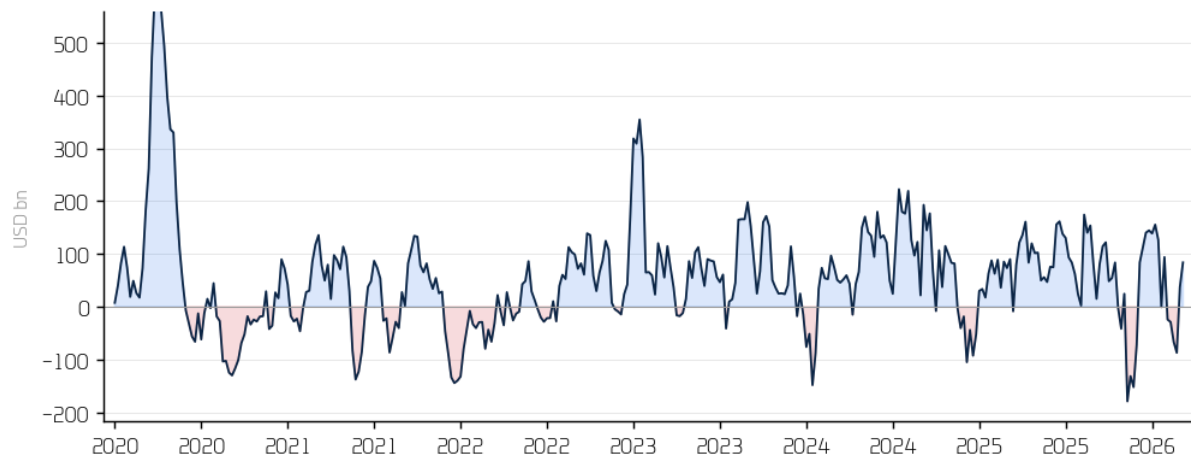
그룹	자산군	4 주 금액(bn)	자산대비(%)	5 년 내 위치
머니마켓(경화)	머니마켓	+71.6	+0.72	하위 48%
미국 주식	주식	+37.4	+0.29	상위 18%
글로벌·기타 채권	채권	+24.8	+0.49	상위 44%
글로벌 주식	주식	+23.6	+0.36	상위 36%
신흥 주식	주식	+15.5	+0.82	상위 9%
단기채	채권	+13.4	+1.03	상위 26%
머니마켓(현지통화)	머니마켓	+12.3	+2.49	상위 20%
대체투자	대체투자	+11.5	+0.71	상위 34%
섹터·테마·기타	주식	+9.9	+0.34	상위 26%
하이일드·론	채권	+7.5	+0.74	상위 32%
혼합형(멀티에셋)	혼합자산	+6.4	+0.23	상위 18%
귀금속	원자재	+5.2	+1.17	상위 24%
국채	채권	+4.2	+0.69	하위 34%
아·태 주식	주식	+3.9	+0.24	상위 20%
기타	기타	+3.1	+1.63	상위 3%
신흥 채권	채권	+2.2	+0.52	상위 25%
기타 원자재	원자재	+1.4	+1.20	상위 22%
투자등급 크레딧	채권	+1.0	+0.13	하위 26%
유럽 주식	주식	-0.1	-0.00	상위 27%
부동산	부동산	-0.7	-0.33	하위 21%

부록 — 6 대 자산군 자금흐름 추이 (4 주누적, 2020~현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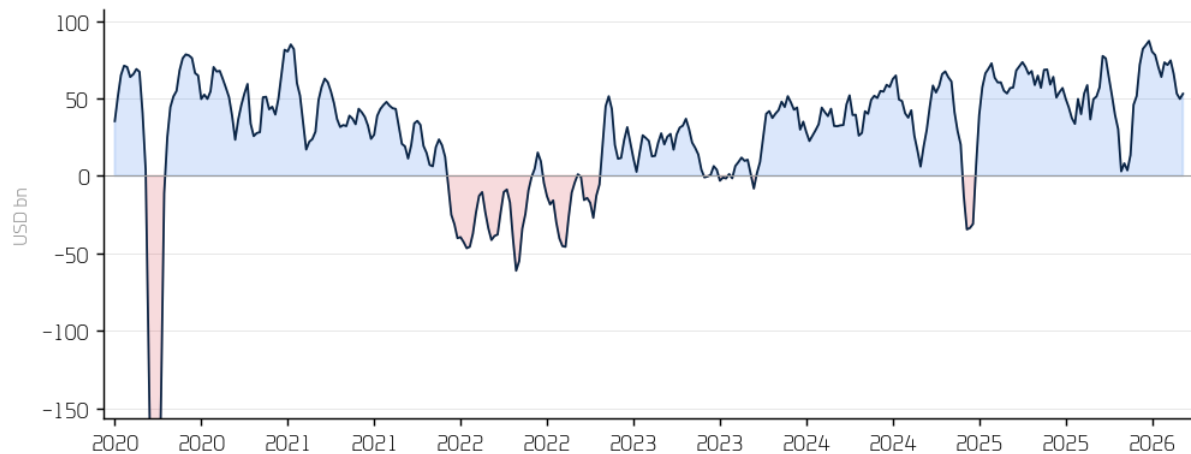
주식 — 4 주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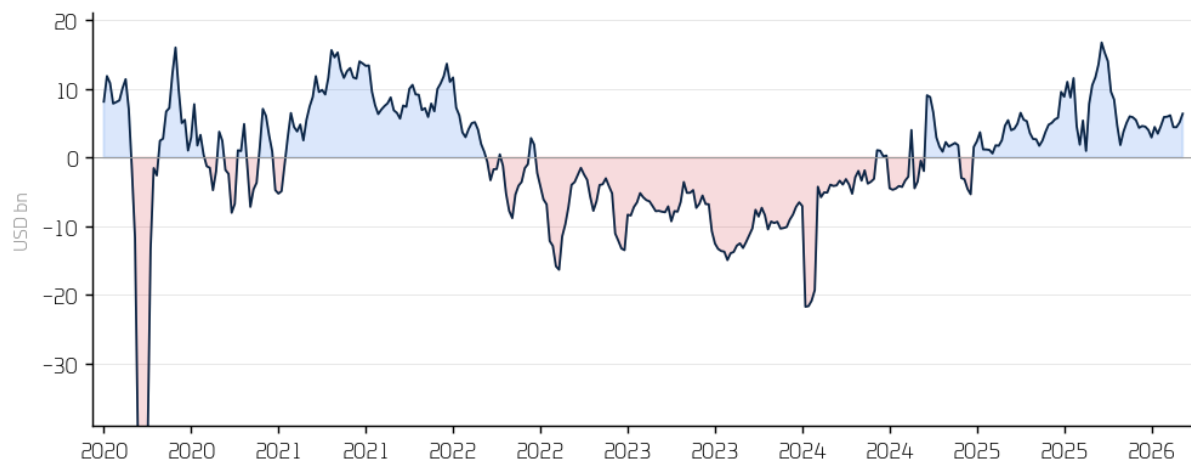
머니마켓 — 4 주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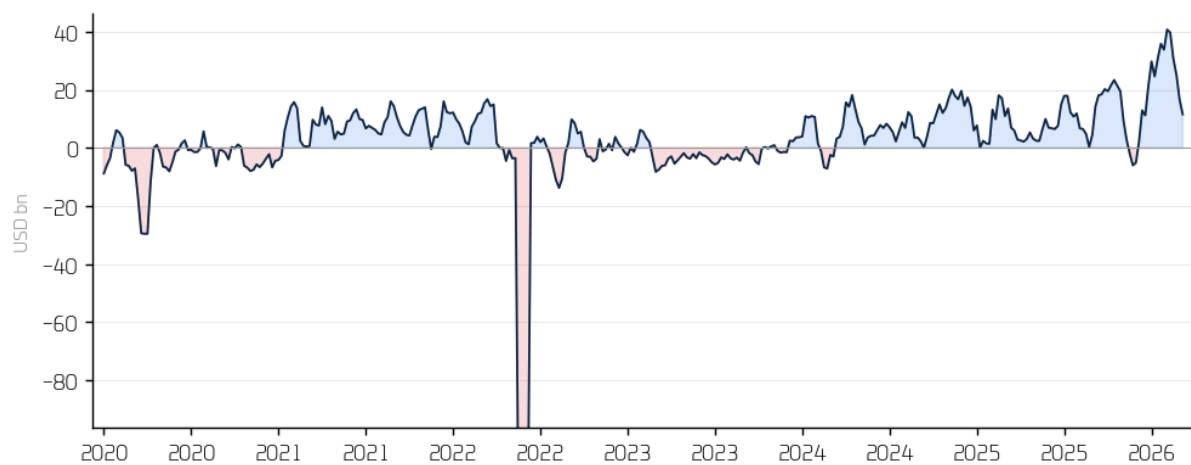
채권 — 4 주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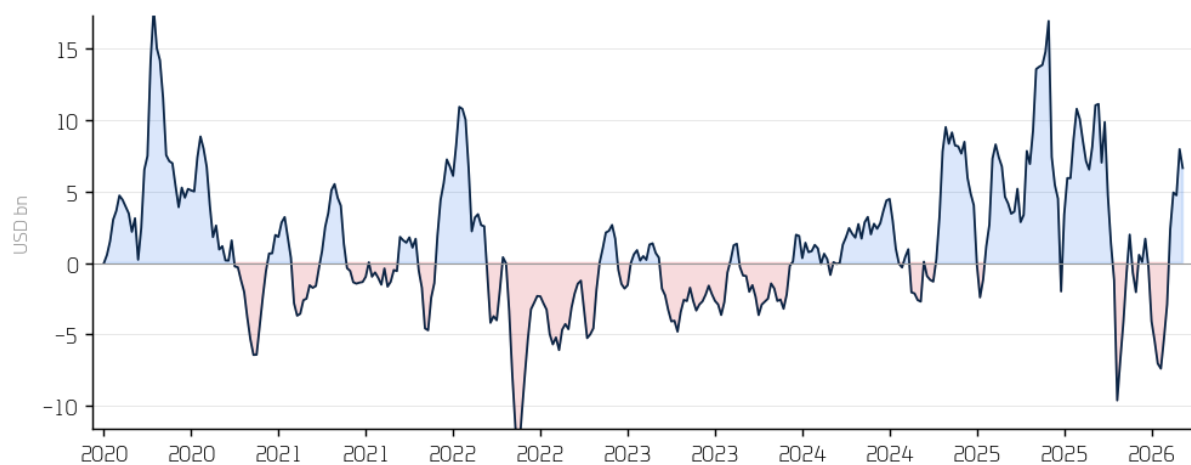
혼합자산 — 4 주누적 순유입 (USD bn)



대체투자 — 4 주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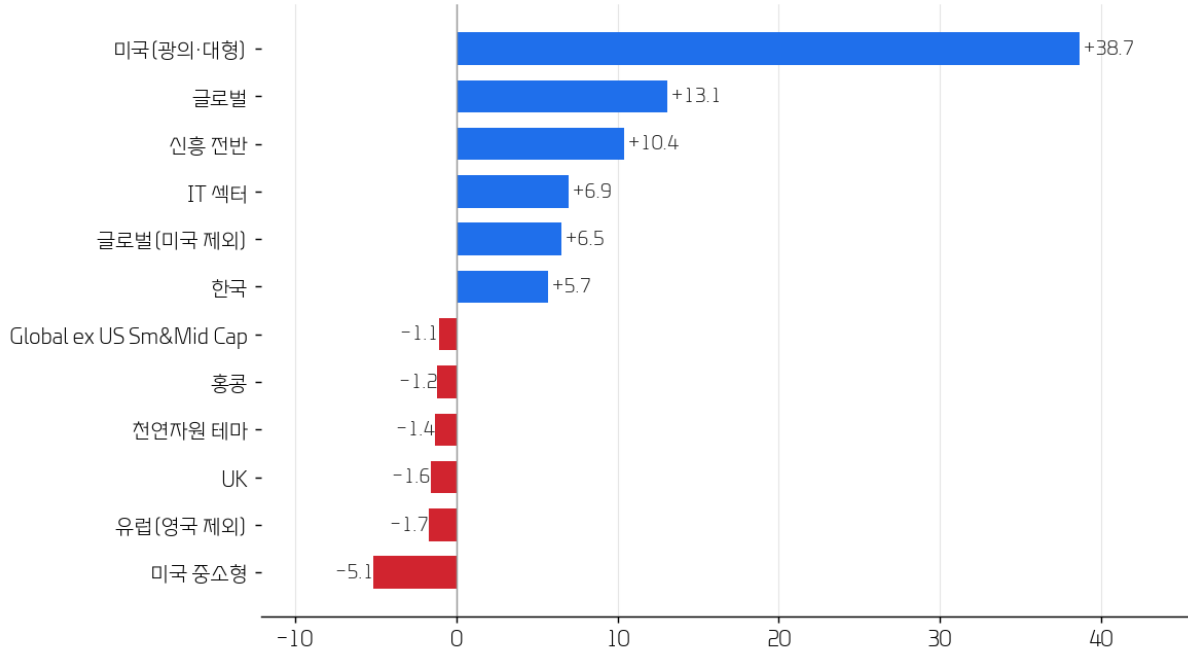
원자재 — 4 주누적 순유입 (USD bn)



부록 — 자산군별 세부 차트 (4 주누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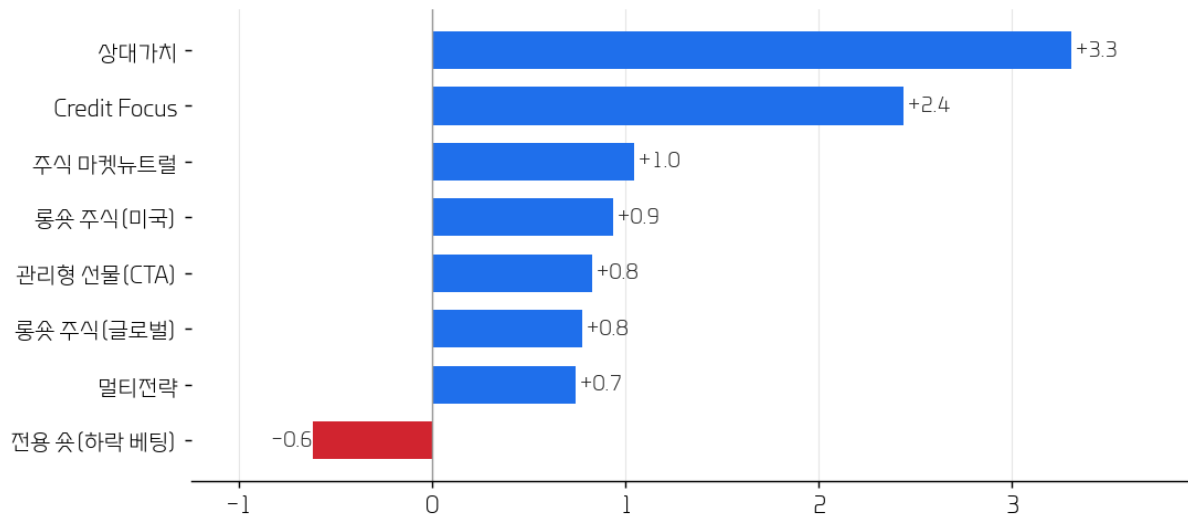
본문 「자산군별 상세」 표를 자산군마다 막대로. 절대금액(bn) 기준이라 규모 큰 항목(미국 등)이 길게 나타난다 — 자산대비 강도는 상세표를 함께 보라.

주식 — 세부 종목별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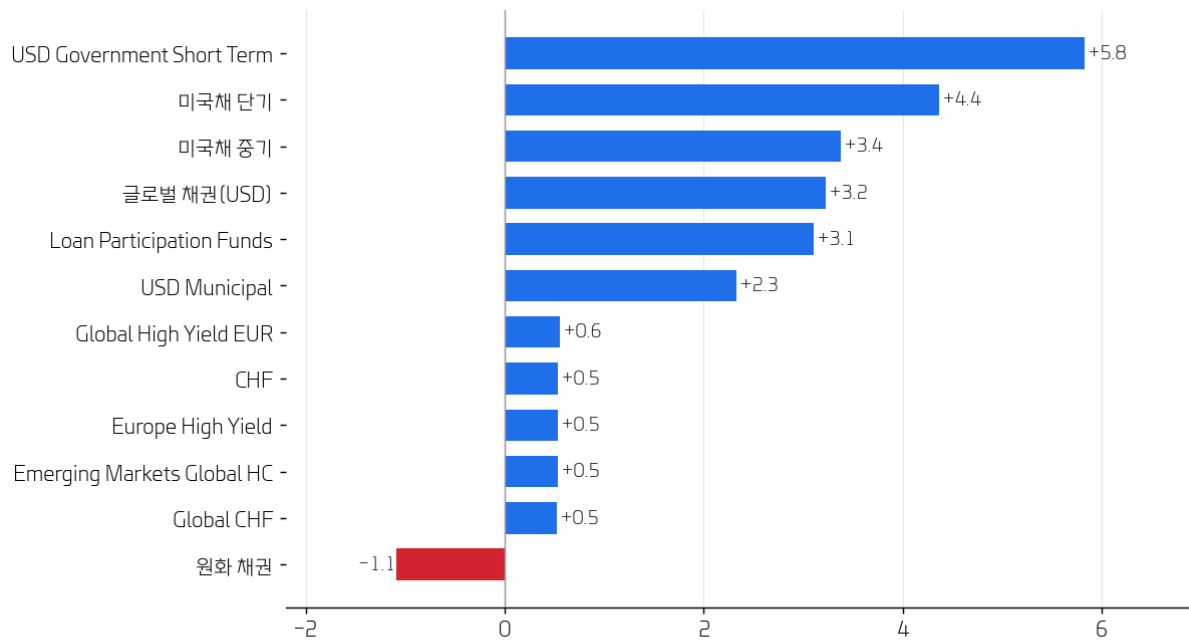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대체투자 — 세부 종목별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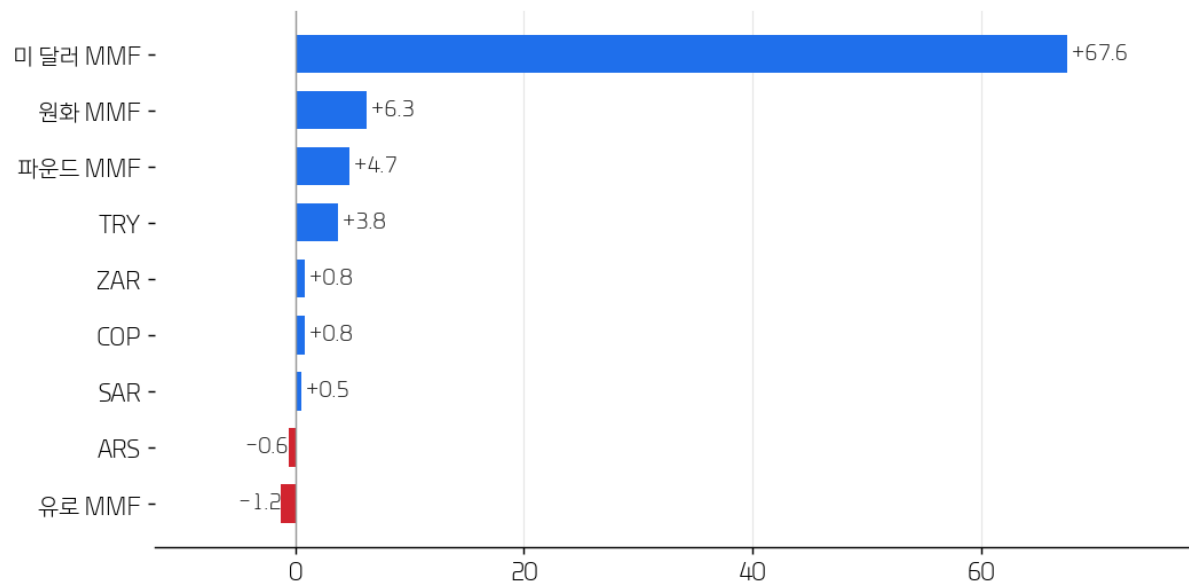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채권 — 세부 종목별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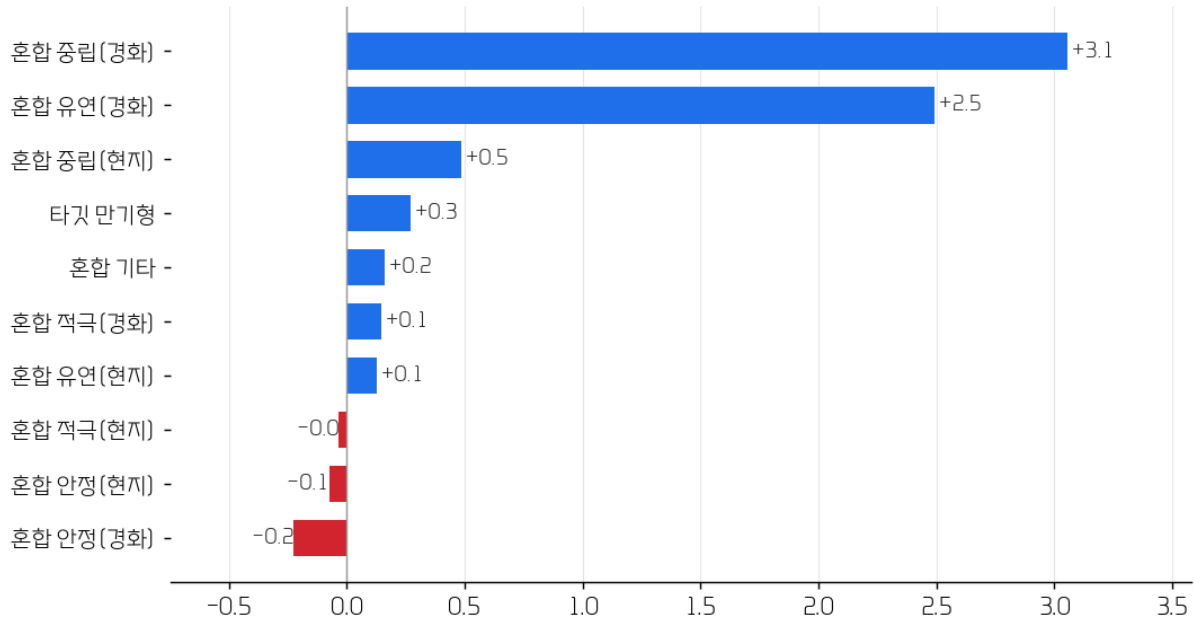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머니마켓 — 세부 종목별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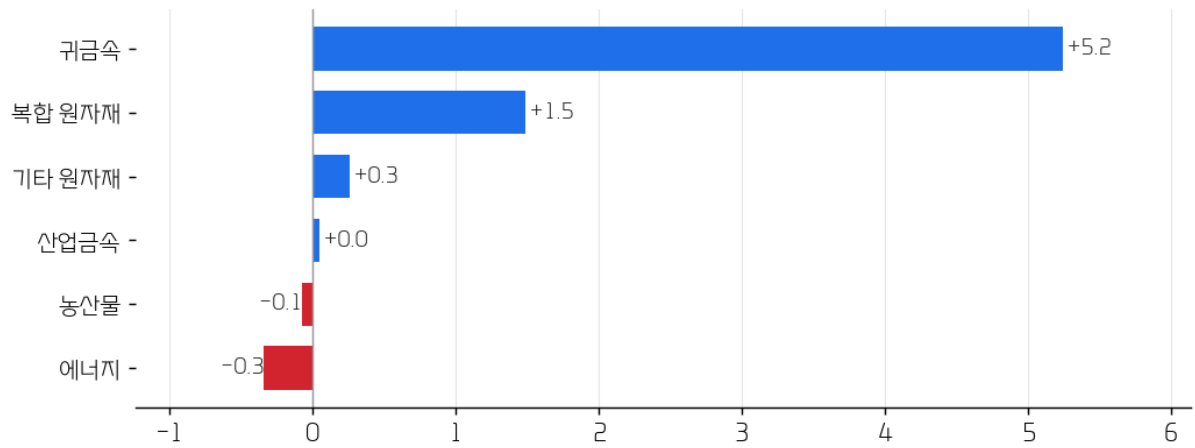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혼합자산 — 중분류별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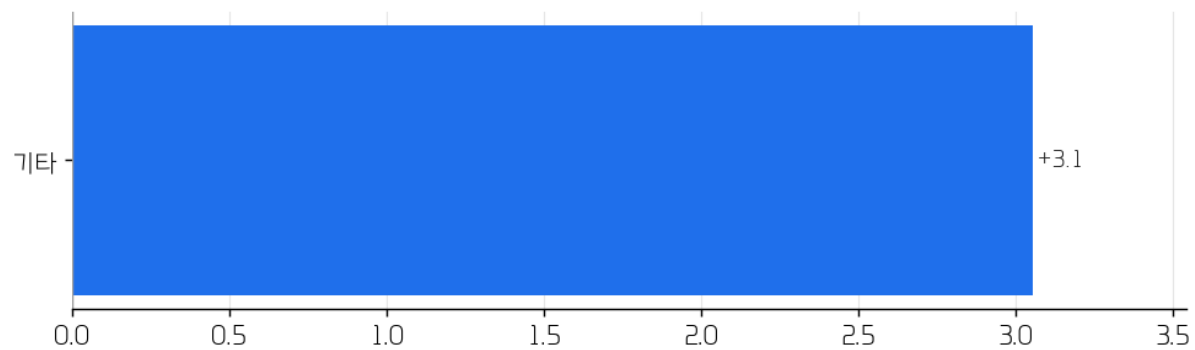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원자재 — 중분류별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기타 — 중분류별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. 금액(Estimated Net Flows, USD)·유입/유출 펀드 수. 매월 첫 주에 숫자가 튀는 특성(월간 보고 펀드)이 있어 4 주 누적·과거 대비 위치로 해석. 제공 수치 기반 분석이며 투자권유 아님.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